

사회적 배척과 소속 욕구가 사회적 사건의 정서 예측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social exclusion and the need to belong on the affective forecasting of social events

김애리* · 손영우** · 임혜빈**†
Hyun-Ah Kim†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intensity of affective forecasting and the size of affective forecasting errors of people who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or those high in need to belong. In Particular, a series of studies was designed to explore the moderating role of the types of future events (i.e. social vs. non-social ev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the need to belong and affective forecasting. Result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or be high in need to belong showed significantly extreme affective ratings on the future social events compared to the future non-social events. Additional results suggested that more social exclusion experiences or higher needs to belong did not affect to the affective ratings on the experienced social events, indicating greater affective forecasting errors of socially excluded people or people with higher need to belong.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social exclusion, need to belong, affective forecasting, affective forecasting error, social event

요약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배척 경험과 소속 욕구 수준이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 예측 및 정서 예측 오류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예비 연구를 통해 구성된 8가지 종류의 사회적 사건과 비사회적 사건에 대해 각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얼마나 기쁠지 혹은 괴로울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을수록 또는 소속 욕구가 높을수록 비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이 가지고 올 괴로움을 더욱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2에 의하면,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거나 소속 욕구가 높다고 해서 실제로 사회적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더 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거나 소속 욕구가 높은 개인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민감한 정서 예측이 그들이 사회적 사건으로부터 경험하는 실질적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 겪게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BK21 Plus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임혜빈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E-mail: hbrim@yonsei.ac.kr

TEL: 02-2123-3892

FAX: 02-365-4354

될 미래 정서를 과대 추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주제어: 사회적 배척, 소속 욕구, 정서 예측, 정서 예측 오류, 사회적 사건

1. 서론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이란 타인에 의해 무시를 당하거나, 배척되거나, 혼자이게 되거나 소외당하는 것을 의미한다(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사회적 배척과 관련한 심리학 연구들은 사회적 배척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소속감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는데(Baumeister & Leary, 1995),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의 불안 수준이 높아지며(Williams, 2001), 혈압이 상승하고(Zadro, 2004),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cortisol)이라는 호르몬 수준이 증가한다고 한다(Gunnar & Quevedo, 2007).

사회적 배척은 개인의 정신 혹은 신체에 해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 수행능력과 관련한 인지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aumeister와 동료들의 연구(2002)에 따르면,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복잡한 논리 문제나 수학 문제 풀이에 있어서 떨어지는 수행 능력을 보였다. 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결정을 내리거나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선택하는 등 자기파괴(self-defeating)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며(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 소요된 시간의 길이 및 방안의 온도 등을 부정확하게 지각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Zhong & Leonardelli, 2008).

사회적 배척이 소속감을 박탈시켜 사회적인 단서에 대해 민감하게 만드는 하나의 ‘경험’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질적인 요인에는 소속 욕구(need to belong)가 있다. 소속 욕구란 대인적인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로써,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 중 하나이다(Baumeister & Leary, 1995).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생존과 생식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소속 욕구’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욕구는 시간, 장소, 문화권을 뛰어 넘어 인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Dewall, Deckman, Pond, & Bonser, 2011).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배척과 같은 경험에 의해 생존과 관련한 기본 욕구인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소속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소속 욕구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관계의 충족만으로도 만족하며 본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수용 정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소속 욕구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도 사회적 단서에 대한 민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속 욕구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배척에 대한 반응에 차이를 보인다(Kelly, 200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이라는 경험과 이 사회적 배척 경험에 대한 반응 정도를 결정하는 ‘소속 욕구’가 의사결정 행위, 구체적으로, 정서 예측(affective forecasting)과 정서 예측 오류(affective forecasting error)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등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결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쾌락적인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즉 미래에 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정서 상태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 가늠해본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감정이나 느낌을 예측하는 것을 정서 예측이라고 한다(Wilson & Gilbert, 2003).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적 배척 경험과 정서 예측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Dewall과 Baumeister(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 정서를 예측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둔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

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2달 후에 있을 라이벌 팀과의 축구 경기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거나 지는 것이 자신의 행복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배척된 참가자는 그렇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미래에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지는 사건이 자신의 행복 수준에 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이 미래 정서 예측을 할 때, 그 사건이 자신의 정서에 가져다주는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한다는 것이다. Dewall과 Baumeister(2006)는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 정서 예측뿐 아니라 물리적 고통이나 공감 능력 등의 심리적 고통이나 기쁨 등의 정서를 덜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Dewall과 Baumeister(2006)의 연구는 사회적 배척이 축구 경기의 결과와 같이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정서 예측을 둔감하게 한다는 것을 지지할 뿐,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다 민감할 수 있는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 예측 역시 과소 추정 하는지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사회적으로 배척된 이들에게는 축구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집단에 다시 소속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사건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집단에 다시 소속되는 종류의 사건들을 중요하게 여긴다(Dewall & Richman, 2011).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사건을 더욱 선택적으로 잘 기억해 내고(Gardner, Pickett, & Brewer, 2000),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더욱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며(Williams, Cheung, & Choi, 2000), 타인에게 더욱 친화적인 행동을 보인다(Cater-sowell, Chen, & Williams, 2008). 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무의식적으로도 인지적 노력을 쏟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미래에 파트너가 될 사람을 더욱 많이 모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상대방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무의식적 선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Lakin, Chartrand, & Arkin, 2008). 또한 Dewall, Maner와 Rouby(2009)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

적 배척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타인의 웃는 얼굴을 더 빠르게 탐지했으며, 웃는 얼굴에 주의를 더욱 오래 고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소속된다는 것의 단서라고 볼 수 있는 ‘웃는 얼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다시 연결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들, 즉 대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큰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속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단서나 사회적 단서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소속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집단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eCremer & Leonardelli, 2003).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들의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도 나타난다. Pickett, Gardner와 Knowles(2004)의 연구에서 소속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정보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더욱 정확하게 탐지해 내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속 욕구가 높을수록 친구들이 사립이나 사건과 같이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친구들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더욱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Hackenbracht & Gasper, 2013). 이와 같은 연구들은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소속 욕구를 지닌 사람들에 비해 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 단서 혹은 수단과 관련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사회적 배척 경험 및 소속 욕구의 정도 차이가 사회적 사건에 대한 민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는, 사회적 배척을 당했거나 소속 욕구가 큰 사람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정서를 예측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특성(사회적 vs. 비사회적)에 따라 그 정서 예측 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암시한다. 즉,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미래의 정서가 비사회적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에는 Dewall과 Baumeister(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미래의 정서를 둔감하게, 즉 괴로운 사건을 덜 괴로울 것이라고 예측할 것이나, 미래의 정서가 사회적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미래의 정서를 민감하게, 즉 괴로운 사건을 ‘더욱’ 괴로울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배척이라는 ‘경험’과 마찬가지로, 높은 소속 욕구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낮은 소속 욕구를 가진 사람에 비해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 예측을 더욱 민감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 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 예측을 더욱 괴로울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1-2: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비 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 예측을 더욱 괴로울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의 정서 예측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니다(Kahneman & Snell, 1990; Wilson & Gilbert, 2003).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정서의 강도나 지속 기간 등을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Gilbert, Gill, Wilson, Blumberg와 Wheatley(1998)는 참가자들에게 지금 사귀고 있는 연인과 2달 후에 헤어진다던 얼마나 불행할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6개월 후, 기존 참가자들 중 연인과 헤어진 참가자들의 실제 행복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제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6개월 전 예측한 행복 지수(즉, 미래의 이별이 가져올 괴로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행복 지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막상 이별을 경험하게 되면 예상한 것보다는 덜 괴로움을 경험한 것이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Gilber et al.(1998)은 교수 임용을 앞둔 조교수들에게 교수 임용의 성공과 실패가 각각 교수 임용 5년 후의 자신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예측하게 하였고, 이를 이미 교수 임용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조교수들이 실제로 5년 뒤에 경험한 정서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수 임용을 앞둔 조교수들은 교수 임용이 성공할 경우에 비해 실패할 경우에 교수 임용 5년 후 유의하게 더욱 불행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이미 교수 임용에 성공한 사

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교수 임용 5년 후의 행복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본 연구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할수록, 그리고 소속 욕구가 높을수록 비 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에 민감하게 정서를 예측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소속 욕구가 큰 사람들의 정서 예측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정서 예측은 그 정확성에 차이가 있을까? 즉,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거나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적 사건이 유발하는 괴로움을 더 심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더 민감한 정서 예측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적거나 소속 욕구가 낮은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단지 정서 예측을 과대 추정하는 것인가.

‘경험에서 배운다’는 상식적 믿음에서 생각해 보면, 정서 예측의 오류는 실질적 경험을 통해 예상보다 괴롭지 않다는 사실이 학습되면 교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 예측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Meyvis, Ratner, & Levav, 2010; Wilson, Meyers, & Gilbert, 2003)들은 유사 사건의 반복 경험이 정서 예측 오류를 줄여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정서 예측을 위해 지난 경험을 회상할 때, 경험한 정서를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한다는 Wilson과 동료들(2003)의 설명은 사회적 배척 경험이 유사한 부정적 사회적 사건이 유발하는 정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으로 배척되었던 사람들이든 사회적으로 소속되었던 사람들이든 새로운 사회적 배척 경험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고통을 느낀다는 Dewart와 동료들의 연구(2011)는 사회적으로 배척된 개인이 실제로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적은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단지 정서 예측을 과대 추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Wilson, Wheatley, Meyers, Gilbert와 Axsom(2000)에 의하면 정서 예측 오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초점주의(focalism)이다. 초점주의는 정서 예측의 대상이 되는 단일 사건에만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고, 미래의 정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다른 요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사건에 민

감한 사회적으로 배척된 개인이나 소속 욕구가 높은 개인은 정서 예측에 있어서 초점주의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사건이 유발하는 정서를 예측해야 할 때, 사회적으로 배척된 개인이나 소속 욕구가 높은 개인은 본인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 사건 이외에 다른 비사회적인 사건의 영향력을 무시할 가능성

이 높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배척 경험 혹은 높은 소속 욕구로 인해 사회적 정보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개인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 예측은 사회적 사건과 비사회적 사건에 유사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는 개인에 비해 그 오류의 크기가 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 오류와 관련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Table 1. 4 social and 4 non-social items of the affective forecasting measure

Type	Item	Social rating(M)	Affect rating(M)
Social	You realize being left out from the event which your friends are organizing together. (친한 친구 무리가 나를 제외하고 약속을 잡은 사실을 알게 된다.)	5.63	2.29
Social	You earn zero votes in a club president election. (동아리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0표로 당선되지 못한다.)	5.69	2.20
Social	You get to know that your friends are talking behind your back. (친구들이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5.88	2.16
Social	No one responds to your instant message for a while.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응답이 없다.)	5.63	2.49
Nonsocial	You have to stay in your room all day long during your vacation due to heavy rain. (기다리던 여행을 갔는데, 여행 내내 비가 많이 와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	2.33	2.55
Nonsocial	Your exam score is lower than your expectation. (성적 확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학점이 낮다.)	2.37	2.43
Nonsocial	“The item” that you are eager to purchase is out of stock. (꼭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겨우 찾았는데 매진이 되어 사지 못한다.)	2.43	2.31
Nonsocial	You fail to sign up the class that you have wanted to take this semester because of a unexpected network error. (컴퓨터 오류 때문에 수강신청에 실패해 계획한 시간표가 엉망이 된다.)	2.35	2.24

가설 2-1: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사건에 대해 더 큰 정서 예측 오류를 보일 것이다.

가설 2-2: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사건에 대해 더 큰 정서 예측 오류를 보일 것이다.

2. 예비 연구

2.1 연구 목적 및 대상

예비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에서 사용될 정서 예측 문항을 구성하는 데 있다. 본 예비 연구에서는 유사한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사회적인 사건과 비사회적 사건의 목록을 구성하고자 평균 연령 25.1세의 일반인 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2 최종 문항 선정 방법

예비 연구의 참가자들에게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69개의 사건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이 사건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사건, 즉 얼마나 본인과 타인이 서로 관련이 되는 사건인지에 대해 7점 척도(1: 비사회적, 7: 사회적)로 평정하였으며, 사건들을 경험한다고 상상할 때의 기분이 얼마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도 7점 척도(1: 부정적, 7: 긍정적)로 평정하였다.

예비 연구의 목적이 본 연구에서 정서 예측 측정치를 사회적 사건에 대한 것과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예비 연구의 결과 참가자들이 가장 사회적인 사건이라고 평정한 사건 20개와 가장 비사회적인 사건이라고 평정한 사건 20개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 사회적인 사건이

라고 분류된 20개의 사건들과 비사회적 사건이라고 분류된 20개의 사건들 가운데 정서 점수를 기준으로 3점 이하인 사건을 부정적인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16개의 사건들 중 유사한 수준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들을 추려 사회적 사건 문항과 비사회적 사건 문항 별 각 4문항씩 총 8문항을 최종 실험 자극으로 선정하였다. 의도한대로, 선정된 사회적 사건 4문항과 비사회적 사건의 4문항의 평균 정서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52)=-.884$, $p=.381$. 최종 문항의 내용은 표 1에 서술되어 있다.

3. 연구 1

3.1 연구방법

3.1.1 연구대상

심리학 교양 과목 및 전공 과목을 듣는 학부생 113명이 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온라인을 통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평균 연령은 21.2세($SD=1.95$)였으며, 이들 중 남녀 수는 각각 47명과 66명이었다.

3.1.2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

사회적 배척은 권기준과 이홍표(2009)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배척 척도를 사용하였다. 권기준과 이홍표(2009)의 사회적 배척 척도는 3요인(괴롭힘, 모욕, 고립)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의견이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모욕 요인과 고립 요인과 달리 신체적 폭력에 대한 경험 여부를 묻는 괴롭힘 요인은 본 연구의 관심사인 심리학적 관점의 사회적 배척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모욕 및 고립 요인의 8문항에 대해 CEFA 3.03(Browne, Cudeck, Tateneni, & Mels, 2008)을 이용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욕 배척 4문항과 고립 배척 2문항을 포함한 6문항만이 단일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6문항을 사회적 배척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의 경험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 6문항의 내적 일치도

는 .895이었다.

3.1.3 소속 욕구(Need to Belong)

본 연구에서는 Leary 등(2001)이 개발한 소속 욕구 척도(The Need to Belong Scale; NTB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소속 욕구 척도는 타인에게 소속하고 싶은 정도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23이었다.

3.1.4 정서 예측(Affective Forecasting)

사회적 사건 및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미래 정서 예측을 측정하기 위해, 예비 연구를 통해 구성된 정서 예측 측정치 8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사건의 정서 예측 4문항(예. 친한 친구 무리가 나를 제외하고 약속을 잡은 사실을 알게 된다), 비사회적 사건의 정서 예측 4문항(예. 기다리던 여행을 갔는데, 여행 내내 비가 많이 와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에서 설명하는 각 사건들이 두 달 후에 발생한다면 그 때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서를 7점 척도(-3: 매우 부정적, +3: 매우 긍정적)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3.1.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 경험 수준과 소속 욕구의 정도에 따라 비사회적 사건 대비 사회적 사건의 정서 예측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건의 종류(사회적 vs. 비사회적), 사회적 배척과 소속 욕구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정서예측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사건의 종류(비사회적 vs. 사회적)에 따라 사회적 배척 및 소속 욕구가 정서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배척 경험 수준이 정서 예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사회적 배척(A), 2단계에서는 사건의 종류(B), 3단계에서는 사회적 배척과 사건의 종류의 상호작용(A×B) 순으로 변인을 추가 투입하였으며, 소속 욕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3.2 연구결과

본 연구는 사건의 종류(사회적 vs. 비사회적)에 따라 사회적 배척 경험 수준이 정서 예측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일수록, 비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정서를 더욱 괴로울 것으로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배척과 사건의 종류의 상호작용이 정서 예측의 총 변량의 1.7%를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임이 밝혀졌다($F(1, 222)=4.245, p<.05$). 즉, 가설 1-1에서 예측한대로 사회적 배척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일어날 비사회적 사건에 비해 미래에 일어날 사회적 사건이 불러일으킬 부정적 정서를 더욱 괴로울 것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410, p<.05$). 본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affect ratings from social exclusion and type of events(social vs. nonsocial)

	ΔR^2	F change	B	SE B	β
Social exclusion(A)	.003	.775	-.027	.031	-.059
Type of events(B)	.099	24.567	-1.735	.350	-.314***
A×B	.017	4.245	-.120	.058	-.184*

*** $p<.001$,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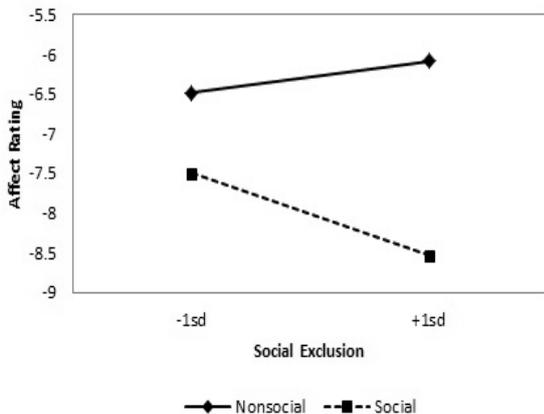


Figure 1. predicted affect rating as a function of social exclusion and type of events(social vs. non-social)

그 다음으로는, 소속 욕구가 클수록 비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정서를 더욱 괴로울 것으로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 1-1 검증과 동일한 방식의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소속 욕구와 사건의 종류의 상호작용이 8.2%의 변량을 설명하는 유의한 효과임이 밝혀졌다($F(1, 222)=24.221, p<.001$). 즉, 가설 1-2에서 예측한대로, 참가자들의 소속 욕구가 높을수록 비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이 불러일으킬 부정적 정서가 더욱 괴로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beta =-.405, p<.001$). 본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affect ratings from need to belong and type of events(social vs. nonsocial)

	ΔR^2	F change	B	SE B	β
Need to belong(A)	.068	16.258	-1.225	.304	-.260***
Type of events(B)	.099	26.460	-1.735	.337	-.314***
A×B	.082	24.221	-2.696	.548	-.405***

*** $p<.001$,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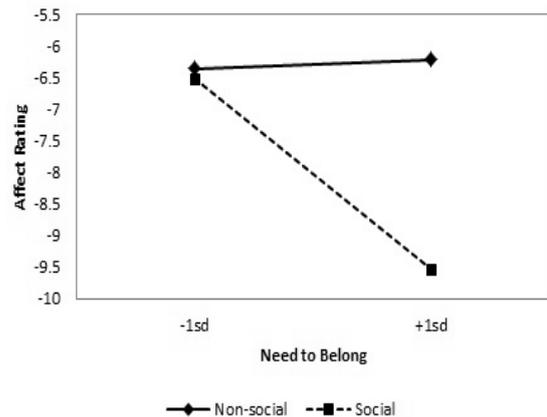


Figure 2. predicted affect rating as a function of need to belong and type of events(social vs. non-social)

4. 연구 2

연구 1에서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거나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비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이 불리일수록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더욱 과대 추정, 즉 더욱 괴로울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 2에서는 사회적 배척을 많이 경험하였거나 소속 욕구가 높은 개인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민감한 정서 예측을 보인 연구 1의 결과가 더 큰 정서 예측 오류를 반영하는지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즉, 연구 2에서는 사회적 배척을 많이 경험하였거나 소속 욕구가 높은 개인이 미래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실제로도 더 괴로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서 예측 경향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정적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사회적 배척 경험이 적거나 소속 욕구가 낮은 사람들과 유사한 정도의 괴로움을 겪지만 단지 미래 정서를 과다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2의 참가자들의 정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 1에서 사용된 동일한 사회적 사건을 현재에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괴로울 것 같은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2에서는 같은 사회적 사건을 현재에 경험할 때와 미래에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할 때의 정서가의 차이, 즉 예측 오류 크기가 사회적 배척 경험 수준과 소속 욕구가 높아질수록 커지는지에 대한 가설 2-1와 가설 2-2를 검증하였다.

4.1 연구방법

4.1.1 연구 대상

심리학 교양 과목 및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123명이 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참가하였다. 평균연령은 23.22세($SD = 3.01$)였으며, 이들 중 남녀 수는 각각 55명과 68명이었다.

4.1.2 사회적 배척

사회적 배척은 연구 1에 사용된 모욕 경험과 고립 경험을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서 묘사된 경험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6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09이었다.

4.1.3 소속 욕구

소속 욕구는 연구 1에서 사용된 10문항으로 구성된 소속 욕구 척도(The Need to Belong Scale, Leary et al., 2001)에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621이었다.

4.1.4 정서 경험(Affective experience)

참가자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사회적 사건을 지금 경험한다고 상상할 경우 경험하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 사용된 4개의 사회적 사건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이 현재 발생한다고 상상할 경우 얼마나 괴로운지를 7점 척도(-3: 매우 부정적, +3: 매우 긍정적)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4.1.5 자료 분석 방법

연구 2에서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고 소속 욕구가 높을수록 정서 예측 오류가 커질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1에서 실시한 미래 정서 예측 자료와 연구 2에서 실시한 현재 정서 경험 자료를 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사회적 배척 경험 수준이 정서 예측 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 평정 시점(현재 정서 경험 vs. 미래 정서 예측)과 사회적 배척 점수를 독립 변인, 괴로움 수준을 측정한 정서 평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 1단계에서는 사회적 배척, 2단계에서는 정서 평정 시점, 3단계에서는 사회적 배척과 정서 평정 시점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 투입하였으며, 소속 욕구의 정서 예측 오류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는 1단계에 소속 욕구, 2단계에 정서 평정 시점, 3단계에 소속 욕구와 정서 평정 시점의 상호작용 순으로 변인을 추가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4.2 연구결과

가설 2-1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일수록, 사회적 사건에 대해 더 큰 정서 예측 오류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가설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의 상호 작용 효과는 5% 기각역 수준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beta = .184, p = .088$).

또한, 사회적 배척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beta = -.049, p = .566$), 정서평정시점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367, p < .001$). 이는 실제 경험하는 정서에 비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정서는 과다추정하게 된다는 정서 예측 오류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Table 4.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es on affect ratings from social exclusion and affect rating time(prediction vs. experience)

	ΔR^2	F change	B	SE B	β
Social exclusion(A)	.002	.556	-.025	.034	-.049
Affect rating time(B)	.134	36.230	-2.507	.416	-.367***
A×B	.011	2.927	-.111	.065	-.184 (p=.088)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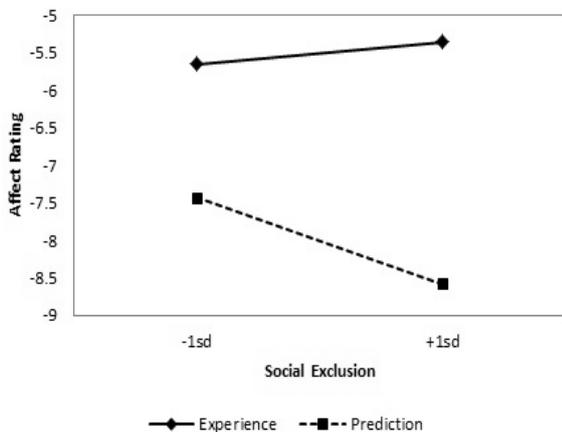


Figure 3. Affect ratings as a function of social exclusion and the time of affect rating (i.e. experience vs. prediction)

가설 2-2에서는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사건이 유발하는 괴로움에 대해 더 큰 정서 예측 오류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가설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표 5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가설 2-2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소속 욕구와 정서평정시점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beta = -.304, p < .001$).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소속

욕구가 높을수록 사회적 사건에 대해 큰 정서 예측 오류를 보여주었는데, 그림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서 경험에 있어서는 소속 욕구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서 예측에 있어서는 소속 욕구가 높을수록 더 큰 괴로움을 보고하였다.

연구 2에서는 소속 욕구가 높을수록 사회적 사건을 경험할 때와 예측할 때의 정서 평정의 차이가 심하게 날 것이라는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 욕구가 높을수록 비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을 더욱 괴로울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 1의 경향성이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들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큰 예측 오류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5.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es on affect ratings from need to belong and affect rating time(prediction vs. experience)

	ΔR^2	F change	B	SE B	β
Need to belong(A)	.071	18.018	-1.516	.357	-.267***
Affect rating time(B)	.108	30.658	-2.277	.411	-.333***
A×B	.049	14.668	-2.545	.665	-.304***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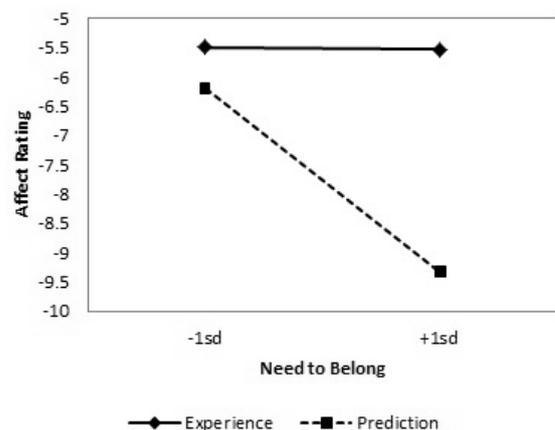


Figure 4. Affect ratings as a function of need to belong and the time of affect rating (i.e. experience vs. prediction)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배척 경험과 소속 욕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정서를 예측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본 연구

는 사회적으로 배척된 혹은 소속욕구가 큰 개인의 사회적 사건과 비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 예측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회적 배척과 소속욕구, 정서 예측의 관계를 사건의 종류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1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척된 경험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비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이 불리일으키는 정서를 더욱 괴로울 것으로 예측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으로 배척된 참가자가 그렇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미래의 정서를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둔감한 정서 예측 반응을 보인다는 Dewall과 Baumeister(2006)의 선행 연구에 반하여 사건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으로 배척된 개인의 정서 예측의 민감도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연구 1에서는 소속욕구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비사회적 사건에 비해 사회적 사건이 불리일으키는 정서를 더욱 괴롭게 예측한다는 예측이 지지되었다. 사회적 정보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을 지닌 소속욕구가 높은 개인들이 사회적 사건과 관련한 정서 예측에 민감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사건에 민감한 개인일수록 그 사건이 유발하게 될 미래 정서를 민감하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정서 예측과 관련한 연구들이 정서 예측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는 데에서 나아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서 예측이 어떻게 달라지고 달라진 정서 예측이 실제 의사결정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Zelenski, Whelan, Nealis, Besner, Santoro, & Wynn, 2013)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예측에 있어서의 개인차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데 그 이론적 의의가 있다.

연구 2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개인이나 소속욕구가 높은 개인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민감한 정서 예측이 그들이 겪는 실제 괴로움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예측을 과대추정하는 오류 때문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비록, 사회적 배척 경험과 정서 평정 시점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가설 2-1가 α level = .05에서 지지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배척 경험을 독립변인, 사회적 사건으로부터 경험한 정서 평정을 종속 변인으로 한 추가 회귀 분석 결과, 사회적 배척 경

험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 사건을 통해 경험하는 괴로움 수준이 더 크다고 보고하지는 않았다($\beta=.047$, $p=.603$). 그 뿐 아니라, 사회적 배척과 정서 평정 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α -level= .10 수준에서는 유의하게 지지되었다는 사실과($\beta=-.184$, $p=.088$), 그림 3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의 방향이 가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척 경험이 많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실제로 더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정적 사회적 사건이 유발하는 괴로움을 과다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 2-1이 일부 지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왜 대인 관계에 있어 배신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오히려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화적인 행동을 보이거나(Carter-sowell et al., 2008) 타인들의 반응에 더욱 신경 쓰는(DeCremer & Leonardelli, 2003) 왜곡된 사회적 전략을 취하게 된다. 사회적 배척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다시 처하는 것이 엄청나게 불행해질 것처럼 과대 추정하여 그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시 집단에 소속되기를 꺼려한다든지 지나치게 희생적인 태도로 사회적 관계에 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시사점에 주목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개인의 정서 예측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가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피험자간 연구로 예측 오류를 측정했는데 그 한계가 존재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의 예측 오류는 정서를 예측하도록 한 집단과 정서를 경험하게 한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물론 개인 내의 예측 오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할 사건을 미리 예측하게 하고 경험 후 정서를 보고하게 하는 종단 연구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예측 오류 연구들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 내에서 일어나는 종단 연구를 통해 사회적 배척 및 소속욕구, 그리고 정서 예측의 관계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배척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 정서 예측 오류를 학습하여 보다 정확한 정서 예측을 하게 되는지, 혹은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사건에 민감해지면서 더 큰 예측 오류를 일으키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사건만을 종속 변인으로 선택하여 설계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배척되거나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즉, 사회적 사건이 유발하게 될 긍정적 정서 역시 더 과대추정 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 보지 못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사회적 사건에 민감한 개인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긍정 정서 예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개인이 겪은 사회적 배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보고 형식의 사회적 배척 경험 척도(Kwon & Lee, 2009)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사회적으로 배척된 이들의 정서 예측 경향성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이버볼 패러다임(Cyberball paradigm, Williams & Jarvis, 2006)과 같은 조작을 통해 사회적 배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추가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척과 소속 욕구로 인한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 예측 오류가 어떠한 기제로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초점주의(focalism)의 영향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사회적 배척 경험을 가진 이들이나 소속 욕구가 높은 이들이 사회적 사건에 민감하여 초점주의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 예측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서 예측 오류가 정말 초점주의에 따른 결과 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척이 되거나 소속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를 예측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비사회적 요소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S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Baumeister, R. F., Twenge, J. M., & Nuss, C. K. (2002).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cognitive processes: anticipated aloneness reduces intelligent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817-827.

Browne, M. W., Cudeck, R., Tateneni, K., & Mels, G. (2008). CEFA: 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ersion 3.02)[Computer software].

Carter-Sowell, A. R., Chen, Z., & Williams, K. D. (2008). Ostracism increases social susceptibility. *Social Influence*, 3(3), 143-153.

De Cremer, D., & Leonardelli, G. J. (2003). Cooperation in social dilemmas and the need to belong: The moderating effect of group siz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2), 168-174.

Dewall, C. N., & Baumeister, R. F. (2006). Alone but feeling no pain: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physical pain tolerance and pain threshold, affective forecasting, and interpers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15.

Dewall, C. N., Deckman, T., Pond, R. S. Jr., & Bonser, I. (2011). Belongingness as a core personality trait: How social exclusion influences social functioning and personality ex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9(6), 1281-1314.

Dewall, C. N., Maner, J. K., & Rouby, D. A. (2009). Social exclusion and early-stage interpersonal perception: Selective attention to signs of accep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4), 729-741.

Dewall, C. N., & Richman, S. B. (2011). Social exclusion and the desire to reconnect.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11), 919-932.

Dewall, C. N., Twenge, J. M., Koole, S. L., Baumeister, R. F., Marquez, A., & Reid, M. W. (2011). Automatic emotion regulation after social exclusion: Tuning to positivity. *Emotion*, 11(3), 623-636.

Gardner, W. L., Pickett, C. L., & Brewer, M. B. (2000). Social Exclusion and Selective Memory: How the Need to belong Influences Memory for Social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Bulletin*, 26(4), 486-496.
- Gilbert, D. T., Gill, M. J., Wilson, T. D., Blumberg, S. J., & Wheatley, T. (1998). Immune neglect: A source of durability bias in affective foreca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3), 617-638.
- Gunnar, M., & Quevedo, K. (2007). The Neurobiology of Stress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145-173.
- Hackenbracht, J., & Gasper, K. (2013). I'm all ears: The need to belong motivates listening to emotional disclos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5), 915-921.
- Kahneman, D., & Snell, J. (1990). In R. M. Hogarth (Ed.), *Insights in decision making: A tribute to Hillel J. Einhorn* (pp. 295-310). Chicago, IL, U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lly, K. M.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ons to rejection.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91-315).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won, K. J., & Lee, H. P. (2009).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the Perceived Self-Utility toward Kin (사회적 배척이 친족에 대한 자기 유용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4), 27-45.
- Lakin, J. L., Chartrand, T. L., & Arkin, R. M. (2008). I Am Too Just Like You: Nonconscious Mimicry as an Automatic Behavioral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Science*, 19(8), 816-822.
- Leary, M. R., Kelly, K. M., Cottrell, C. A., & Schreindorfer, L. S.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need to belong*. Unpublished manuscript, Wake Forest University, Winston-Salem, NC.
- Meyvis, T., Ratner, R. K., & Levav, J. (2010). Why don't we learn to accurately forecast feelings? How misremembering our predictions blinds us to past forecasting error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9(4), 579-589.
- Pickett, C. L., Gardner, W. L., & Knowles, M. (2004). Getting a cue: The need to belong and enhanced sensitivity to social c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9), 1095-1107.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 - 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3), 606-615.
- Williams, K. D. (2001).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New York: Guilford*, 282.
- Williams, K. D., Cheung, K. T.,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48-762.
- Williams, K. D., & Jarvis, B. (2006). Cyberball: A program for use in research on interpersonal ostracism and acceptance. *Behavior research methods*, 38(1), 174-180.
- Wilson, T. D., & Gilbert, D. T. (2003). Affective forecasting.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5, pp. 345-41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Wilson, T. D., Meyers, J., & Gilbert, D. T. (2003). "How happy was I, anyway?" A retrospective impact bias. *Social Cognition*, 21(6), 421-446.
- Wilson, T. D., Wheatley, T., Meyers, J. M., Gilbert, D. T., & Axson, D. (2000). Focalism: A source of durability bias in affective foreca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5), 821-836.
- Zadro, L. (2004). *Ostracism: Empirical studies inspired by real-world experiences of silence and exclusion*. PhD thesis. Univ. New South Wales. 294pp.
- Zelenski, J. M., Whelan, D. C., Nealis, L. J., Besner, C. M., Santoro, M. S., & Wynn, J. E. (2013). Personality and affective forecasting: Trait Introverts underpredict the hedonic benefits of acting extraver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6), 1092-1108.
- Zhong, C. B., & Leonardelli, G. J. (2008). Cold and lonely: Does social exclusion literally feel cold? *Psychological Science*, 19(9), 838-842.

원고접수: 2014.06.25

수정접수: 2014.08.28

게재확정: 2014.09.01